

# 청소년의 가족관련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Family Related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the Ways of Coping of Adolescents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시간강사 김 만 지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Ewha Woman's Univ.  
Part-time Instructor : Kim, Man-Ji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purposes of study are to examine the effect of family related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the ways of coping of adolescents and provide a ground necessary to improve it. A survey was conducted on 756 adolescents who were living in Naju.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utilized two different models, direct effect model and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ways of coping of adolescents. Research findings suggest that the level of coping appeared to be low in general among adolescents. The finding of direct effect model of social support was that mother's support, father's support, sibling's support, father's grade, mother's grade, and economic level effected the ways of coping of adolescents. But it was not empirically supported that the social support buffered the family related stress on the ways of coping. In other words, the effects of family related stress factor didn't decrease with the increase in the level of social support, however the level of coping increased at a mercy of the age and economic level. Finally, this paper attempted to provide some alternatives to effectively improve the ways of coping among adolescents based on empirical findings.

**주제어(Key Words):** 청소년(adolescent), 가족관련 스트레스(family related stress),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대처방식(the ways of coping)

## I. 서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인지적, 그리고 사회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는 과도기로 설명되고 있다. 청소년기는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자아가 싹트기 시작하고 성인으로서의 삶에 필요한 사회적, 지적 기술과 지식을 쌓으며 인격이 완성되어 가는 중요한 삶의 한 시기이다. 이러한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 과도기적인 사회적 위치로 인한 역할 갈등, 장애에 대한 부담과 불안, 과중한 학업부담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겪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다양한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부적응을 경험한다(Williams & Lisi, 2000).

비록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성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소년기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도 꾸준히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Compas, Orosan, & Grant, 1993). 이렇게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나름대로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Stem & Zervon, 1990) 청소년들의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Seiffge-Krenke(1993)는 청소년의 대처방식에 대한 이해가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Eisenberg, Fabes, 그리고 Guthrie(1997)는 청소년기 동안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적응적인 결과를 유도해 내고 적응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처방식에 대한 개입은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은 가족과 관련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윤혜정, 1993; 유안진, 1993). 하지만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이 사회적지지 체계나 자원들의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가 많을수록 심리적 안녕을 누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며, 타인에게서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hen & Wills, 198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대처방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대처방식 수준을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와 가족관련 스트레스가 청소년들의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지지가 청소년의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두 모델 즉 직접효과모델(direct-effects model)과 완충효과모델(stress-buffering model)을 활용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청소년의 대처방식 보호요인 강화의 실증 자료를 탐색하고 추후 청소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처방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대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갖는다.

첫째, 청소년의 대처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대처를 예측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들은 어떤 변인들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의 가족관련 스트레스

스트레스란 용어는 부모의 이혼, 새로운 학교로의 전학, 가까운 사람의 죽음 등의 경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간의 특별한 관계가 안녕을 위협하고 개인이 가진 자원을 초과하는 것을 지칭하여(Lazarus & Folkman, 1991) 스트레스와 변화의 의미가 중복되어 있어 스트레스가 매개체(agent)이자 동시에 반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스트레스적 사건의 성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이 어떤 한 시점에서 직면하는 변화와 요구의 양이다. 몇몇 연구들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양과 자신의 삶에서 복지와 만족에 대한 지각간에 부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de Anda, Baroni, Buchwald, Morgan, Ow, Gold, & Weiss, 2000).

실제로 청소년기는 스트레스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특히 가족의 변화는 청소년기 스트레스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은 나이 든 청소년들보다 가족관련 스트레스에 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여자청소년들은 남자청소년들보다 가족관련 스트레스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Plunkett, Henry, & Knaub, 1999). 또한 가족의 재정 스트레스와 청소년 우울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스트레스 사건을 계속해서 인지하는 청소년들은 적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관련 스트레스 사건들은 청소년 가족 생활 만족과 부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Plunkett, Henry, & Knaub, 1999).

한편 이도영(1990)은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과 그 대처반응에 관한 연구에서 조사대상 학생의 64%가 심각한 위기상태의 스트레스 수준에 있고 14.1%는 중중의 스트레스 수준, 15.1%는 경중의 스트레스 수준에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윤혜정(1993)은 청소년이 가족과 관련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스트레스 영역 가운데 특히 가족관련 스트레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지지종류(정서적, 정보적, 도구적, 평가적)와 지지원(친구, 가족, 교사)을 포함하는 다측면적인 개념이다(Dumont & Provost, 1999).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행동문제를 완화해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신애현, 1998) 사회적지지가 낮은 청소년들은 불안, 우울, 수면 장애를 가져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umont & Provost, 1999).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사회적지지 변인은 다중공선성과 자기상관의 문제를 고려하여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사회적 지지원과 지지종류 가운데에서 사회적 지지원을 독

립변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은 성인이나 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 형제, 친척, 이웃, 친구, 교사 등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적 세계 속에서 생활하며 이들은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황윤경, 1996; 이영자, 1995; 윤혜정, 1993)은 어머니, 아버지, 형제, 친구, 교사 등이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타자이며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요한 사람임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먼저 부모는 아동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에도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제공자인 것으로 밝혀졌다(Furman & Buhrmester, 1992; Deroiser & Kuppersmidt, 1991). 어머니는 청소년기의 자녀에게 친밀감, 애정, 가치인정, 도구적 도움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urman & Buhrmester, 1992; Deroiser & Kuppersmidt, 1991) 아버지는 대체적으로 어머니보다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uhrmester & Furman, 1987). 박영애(1996)의 연구에서 부모지지는 여자청소년의 스트레스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urman과 Buhrmester(1992)는 청소년기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와의 사회적지지 유형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형제는 부모나 친구가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관계망 성원으로서 특히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특성과 맞물려 형제에게 동료애를 느끼고 친밀한 유대를 형성한다. 한편 친구는 부모나 형제 등의 비자발적인 관계와는 달리 자발적인 상호의존적 관계로 새로운 대인관계의 시초가 되며, 가족원들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와는 다른 성질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 Furman과 Buhrmester(1992)는 청소년기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구로부터 지각된 지지수준은 꾸준히 증가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제공되는 지지 점수는 점차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학교는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사회적 환경으로 특히 교사는 청소년에게 지적 성숙의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Furman & Buhrmester, 1992).

### 3. 청소년의 대처방식

대처방식은 상황을 수정하려는 노력 없이 해로운 자극을 피함으로써 심리적인 불안을 줄이고자 하는 정서에 초점을 두고 있다(Dumont & Provost, 1999).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개인은 변화에 직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처방식을 사용한다. 즉 대처방식이란 스트레스의 근원을 다루는 것으로(Brehm, 1998), 개인이 요구에 부딪혔을 때 이루어나가는 문제해결 노력으로서 적응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Seiffge-Krenke, 1995). Lazarus와 Folkman(1991)은 대처방식전략을 개인이 스트레스의 영향을 인내하거나 빠져나오거나 최소화하도록 하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으로 지칭하였다. Seiffge-Krenke(1995)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문제해결 대처방식 모델은 기능적(정보 추구, 지지 수용, 문제 해결 노력)이지만 반면에, 대처방식 전략을 회피하는 것은 역기능적(회피, 철회)이라고 밝혔다. 후자는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 우울 성향이 있고 자존감이 낮고, 사회적지지 만족도가 낮으며 사회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서 주로 관찰되고 있다(Dumont & Provost, 1999).

김창대(1985)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과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관한 연구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정서지향적으로 대처했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정서지향적 대처경향이 적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경희(1995)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처양식을 조사한 결과 중·고등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음악듣기였다고 밝혔다.

### 4. 청소년의 가족관련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대처방식

많은 연구들이 학교환경 내에서의 압력과 기대가 청소년들이 가장 자주 보고하는 스트레스임을 보고하고 있지만(Armacost, 1989; McGuire & Mitic, 1987; Omizo, Omizo, & Suzuki, 1988; Sheridan & Smith, 1987; Stark, Spirito, Williams, & Guevremont,

1989)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Lempers, Clark-Lempers, & Simon 1989), 가족의 불화(Fontana & Dovidio, 1984; Omizo, et al., 1988) 문제 등 가족관련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삶에서 겪는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에게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Compas, Davis, & Forsythe, 1985; Johnson, 1986).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영향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대처방식 전략과 연결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지 못하다. 청소년들은 완화적(분노 감소), 직접적인 행동(문제해결)의 대처방식 전략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Lazarus & Folkman, 1991). 예를 들면, McCubben과 Patterson(1987)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문제해결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긍정적인 인지 기법과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휴식(음악듣기, 드라이브)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yszkowa(1990)도 대처방식전략 중에서 인지 통제 방법과 사회적 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른 연구들은 부모와 친구로부터의 사회적지지를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Cauce, Felner, & Primavera, 1982; Greenberg, Siegel, & Leitch, 1982; Hirsch, 1985).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족관련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라도 나주시의 학생청소년으로 나주시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가운데 학교를 표집단위로 할당표집하여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로 선정된 학교에서 학년별로 무작위로 3-4학급을 대상으로 정한 후, 담임 선생님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자와 조사가원이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조사기간은 2000년 1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845부 가운데 응답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사례 89부를 제외하고 총 756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 2. 조사도구

주요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조사도구는 다음과 같다.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하고 김정희(1987)가 변안 수정한 대처방식척도(The Ways of Coping)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6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하지 않음(0점)'에서 '아주 많이 사용함(3점)'의 리커트형 4점 척도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대처방식 척도의 신뢰도 계수(알파)는 .94이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설문은 박지원(1985)의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지지 척도는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제공자인 어머니, 아버지, 형제, 친구, 교사가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제공하는지에 대하여 '매우 그렇게 느낀다'(5점)에서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1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모두 25문항으로 청소년에 의해 지각된 사회적지지 점수의 범위는 각 사회적지지의 범주에 따라 25점에서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점수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알파)는 .96이었다.

다음으로 가족관련 스트레스 변인은 가족 성원의 수, 역할, 생활영역의 변화, 가까운 집안 식구의 죽음, 가정 경제 상태 악화, 부모의 별거 및 이혼, 법적 갈등 등 가족관련 스트레스 15문항을 조사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0점)'에서 '매우 심각하다(3점)'의 리커트형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밖에 조사대상자의 연령,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측정하는 7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0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마지막 단계에서 가족관련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가운데 지지원 변인의 곱인 새 변수를 추가하여 그 변수의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IV. 결과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변인의 일반적 경향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관련변인의 일반적 경향은 <표 1>과 같다. 먼저 연령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12-14세가 32.3%(244명), 15-17세가 53.3%(403명), 18-19세가 14.4%(109명)로 나타나 십대 중기 청소년이 많이 차지하였다. 성별 구분에서는 여자가 79.4%(606명), 남자가 20.6%(156명)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많았다. 부의 학력에서는 고졸 45.9%(337명), 중졸 25.0%(184명), 초졸 이하 19.7%(145명), 대졸이상 9.4%(69명) 순으로 나타났고, 모의 학력에서는 고졸 39.1%(288명), 중졸 34.2%(252명), 초졸 이하 23.3%(171명), 대졸이상 3.4%(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경제적 계층을 보면, 상류층이 0.9%(7명), 중상류가 9.8%(73명), 중류가 74.7%(556명), 중하류가 13.3%(99명), 하류층이 1.2%(9명)로 과반수가 넘는 조사대상자들이 스스로를 중류층 가정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대처방식의 평균값은 66.80으로 나타나서 대처방식의 수준이 중간값 69.00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지지와 가족관련 스트레스의 평균값은 각각 90.54와 1.67로 각각의 중간값 97.00과 2.00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변인의 일반적 경향

분류	내용	빈도(명)	백분율(%)
연 령	12-14세	244	32.3
	15-17세	403	53.3
	18-19세	109	14.4
	전체	756	100.0
성 별	여	600	79.4
	남	156	20.6
	전체	756	100.0
부학력	무학	14	1.9
	초졸	131	17.8
	중졸	184	25.0
	고졸	337	45.9
	대졸 이상	69	9.4
	전체	735	100.0
모학력	무학	16	2.2
	초졸	155	21.1
	중졸	252	34.2
	고졸	288	39.1
	대졸 이상	25	3.4
	전체	736	100.0
경제수준	상류	7	0.9
	중상류	73	9.8
	중류	556	74.7
	중하류	99	13.3
	하류	9	1.2
	전체	944	100.0
	평균값	표준편차	중간값
대처방식(n=567)	66.80	28.56	69.00
사회적지지(n=489)	90.54	15.27	97.00
가족관련 스트레스(n=721)	1.67	1.03	2.00

## 2. 대처와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대처와 관련 변인과의 단순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가족관련 스트레스와 청소년들의 대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련 스트레스와 대처는 강하고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가족관련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대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

〈표 2〉 대처와 관련변인들과의 상관관계

변인	대처 수준
가족관련 스트레스	.451*
어머니지지	.016
아버지지지	.001
형제지지	.088*
친구지지	.221**
교사지지	.078*

\*p<.05, \*\*p<.01

러한 결과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민하영(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사회적 지지의 지원 중에서 청소년들의 대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인들은 형제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나타났다. 이들 사회적 지원들은 아주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대처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형제의 지지가 높을수록, 친구들의 지지가 높을수록, 그리고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대처 수준이 높아짐을 예측할 수 있다.

## 3. 대처의 예측변인 분석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들의 대처간의 관계에서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지지가 대처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고 다음은 가족관련 스트레스가 대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완화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회귀분석에 포함된 몇몇 변인들의 상관관계수가 높아서 다공선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VIF 값이 1.0-2.3사이의 값을 가져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상관을 검사하기 위해서 더빈-왓슨 d 통계량을 검사한 결과 그 수치가 2.010-2.042사이여서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사회적 지지의 직접효과에 따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들의 대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직접효과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연령, 부학력(가변인 처리), 모학력(가변인 처리), 경제수준, 가족관련 스트레스와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지지원 변인(어머니, 아버지, 형제, 친구, 교사)이 독립변인으로서 동시에 투입되었다.

〈표 3〉에서 독립변인들의 대처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 전체의 결정계수는 43.9의 설명력을 나타나고 있다. 즉 청소년의 대처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어머니지지, 아버지지지, 부의 학력 가운데 중졸과 대졸이상 변인들이 전체 변량의 약 43.9%를 설명하고 있다.

분석결과 특히 부학력이 중졸 및 대졸 이상인 경우와 대처에 대한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것은 주목할만하다. 부의 중졸 학력은 Beta값이 .308, 대졸 이상은 .327로 나타나서 부의 학력이 청소년의 대처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각 변인의 Beta값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지지는 -.594로 여러 독립변인 가운데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진 변인임을 알 수 있었고, 아버지지지도 .545로

어머니지지에 못지 않은 영향력을 가진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머니지지는 아버지지지와는 달리 청소년의 대처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가 청소년 사회적지지의 중요한 제공자인 것으로 나타난 Furman과 Buhrmester(1992), Buhrmester와 Furman (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어머니지지와 아버지지지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윤혜정(1993), 장윤정(1996)과 비교해 볼 때, 특히 어머니의 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대처방식 수준이 낮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주목할만하다. 최근 연구에서 청소년기의 부모 애착은 사회적 유능성, 정서적 적응, 자아존중감, 신체적 건강 등 여러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촉진하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지고(Allen, Bell, & Boykin, 1994) 있으나 본 연구에서 대처에 대한 어머니지지의 부정적인 영향은 청소년기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라는 면에서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가 성인으로서의 준비과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반영하는 것(신애현, 1998)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래의 영향력이 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지지와 부의 학력이 청소년의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주목할만하다. 특히 부의 지지와 부학력이 청소년의 대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어 청소년 시기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이 막대함을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과 미래에 한 가정의 가장이 될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대처교육이 특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에 따른 분석

사회적 지지의 가족관련 스트레스 완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의 하나인 위계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수 전체의 결정계수는 63.2의 설명력을 나타나고 있다. 즉 청소년의 대처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연령과 경제수준의 두 변인이 전체 변량의 약 63.2%를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의 완충효과를 파악하

〈표 3〉 청소년들의 대처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변수	B	Beta	t값	SE
부학력 I(d)	23.567***	.308	1.842	12.797
부학력 II(d)	28.789***	.327	1.707	16.861
모학력 I(d)	14.357	.228	1.098	13.074
모학력 II(d)	-22.833	-.147	-.725	31.504
경제수준	-9.374	-.141	-.911	10.292
어머니지지	-.889*	-.594	-2.784	.319
아버지지지	.785**	.545	1.103	.308
형제지지	.415	.273	2.551	.376
(Constant)	43.929			
R <sup>2</sup>	43.9			
F	1.790(p=.085)			

\*p<.05 \*\*p<.01 \*\*\*p<.1

〈표 4〉 청소년들의 대처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변수	B	Beta	t값	SE
연령	18,890**	1.052	5.886	3.209
경제수준	-18,556*	-.516	-2.885	6.432
(Constant)			-167.597	
R <sup>2</sup>			63.2	
F			17.321(p=.002)	

\*p<.05, \*\*p<.01

기 위해 공변수(가족관련 스트레스\*어머니지지, 가족관련 스트레스\*아버지지지, 가족관련 스트레스\*형제지지, 가족관련 스트레스\*친구지지, 가족관련 스트레스\*교사지지)를 첨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관련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의 하위 지지원들이 상호작용 하여 청소년들의 대처에 미친 영향력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오히려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운데 청소년의 연령과 가정의 경제 수준이 청소년의 대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연령은 Beta값이 1.052로 나타나서 대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경제수준은 Beta값이 -.516으로 나타나서 대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적인 성숙과 더불어 대처 수준이 높아지게 될 수 있다. 이는 박유정(1993), 김창대(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문제해결을 위한 청소년 스스로의 대처력이 높아진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족관련 스트레스는 부모, 형제, 친구, 교사의 지지로 인하여 완화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표 4〉에서 가족의 문제를 다루어줄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함을 유추해볼 수 있다.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청소년들이 가지게 되는 대처 기술들이 성인으로 연결되며 미래에 청소년들이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고려해볼 때 가족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다방면의 개입 서비스가 이루어져야겠다. 더욱이 높은 청소년 자살율

(de Anda, 1995; Cohen-Sandler, Berman, & King, 1982), 우울(Fredrich, Reams, & Jacobs 1992), 그리고 약물남용(Bruns & Geist, 1984; Gad & Johnson, 1980; Labouvie, 1980)은 청소년들이 겪는 삶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대처기술이 부족한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생이라는 점, 교사의 지지가 학생들의 대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그리고 사회적지지가 청소년들의 대처에 미치는 가족관련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지 못하는 결과를 고려해볼 때 학생들의 대처 관련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관련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대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청소년들의 대처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생 청소년 7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족관련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청소년들의 대처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 검증에서는 어머니지지, 아버지지지, 형제지지가 유용한 사회적 지지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학력과 경제수준이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검증결과 사회적지지가 청소년들의 대처에 미치는 가족관련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한다는 것이 검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들의 대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대처를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대처 수준이 높지 않은 것을 고려해볼 때 대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가 요구된다. 실제로 사회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처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만지, 2001; 이시형 외, 1998). 따라서 학령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처 프로그램의 실시가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여러 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이 요구된다. 가족관련 스트레스가 학령기 중고등학생의 대처에 높은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지지는 이러한 가족관련 스트레스를 완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해볼 때, 가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개발, 실시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가족역량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대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후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서비스의 전달체계 측면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즉 청소년들의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학교는 학생들이 가정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학생들의 교육적인 성취를 제공하는 장이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이 교육적인 성취를 달성할 수 있는 학교 여건을 제공하여 학생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가족체계에서 이루어졌던 사회화의 역할이 현대에 와서는 학교와 지역사회로 많이 이전되고 있어 학교에서 실시되어야 할 예방프로그램(school-based program)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청소년을 길러내기 위한 우리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체계 외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증가하는 학교 중퇴율과 청소년 가출을 고려해볼 때(한인영 외, 1999), 학교 체계에서 돌아선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의 중요성은 건강한 청소년들을 길러내기 위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임이다. 따라서 교회, 쉼터, 청소년센터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예방적이고 사후대책적인 대처와 지지 프로그램들이 인간 서비스의 제공 차원에서 학교 외부에 존재

할 당위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그동안 대처에 대한 연구가 성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청소년의 대처에 대한 연구가 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대처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청소년의 대처를 살펴보고, 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며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기·중기·후기 청소년기를 구분하지 않고 청소년기라는 한 범주에 포함시켜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가족관련 스트레스, 그리고 대처에 대해 조사하였다. 하지만 초기·중기·후기 청소년기 발달단계에 따른 가족관련 스트레스, 대처, 그리고 사회적지지 수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초기·중기·후기 청소년기의 각 집단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요한 사건 중심의 가족관련 스트레스에 주로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하여 대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전라도 나주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 ■ 참고문헌

- 김만지(2001). 임신한 청소년들을 위한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9), 27-48.
- 김승원(2000).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관련된 변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창대(1985). 우울과 스트레스 대처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외통제소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영애(1996). 학업성적 및 사회적지지가 여고생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유정(1993). 연령, 성별, 성역할 정체감 및 상황평가가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애현(1998).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혜정(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망지지 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1996).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도영(1990).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그 대처반응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시형 외(1998). 스트레스, 문제없다.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영자(1995).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윤정(1996). 아동·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인영 외(1999). 학교와 사회복지. 서울: 학문사.
- 황윤경(1996). 청소년 또래집단의 지각된 사회적지지와 심리사회적 성숙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len, J. P., Bell, K. L., & Boykin, K. A. (1994). Autonomy and relatedness in adolescent-mother interactions and social functioning with peer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San Diego, CA.
- Armacost, R. L. (1989). Perceptions of stressors by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4*, 443-461.
- Brehm, B. A. (1998). *Stress Management-Increasing Your Stress Resistance*. Longman.
- Bruns, C., & Geist, C. S. (1984). Stressful life events and drug us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Human Stress, 9*, 135-139.
- Buhrmester, D. & Furman, W. (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 1101-1113.
- Cauce, A. M., Felner, R. D., & Primavera, J. (1982). Social support in high risk adolescents: Structural components and adaptive impac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4), 417-427.
- Cohen-Sandler, R., Berman, A. L., & King, R. A. (1982). Life stress and symptomatology: Determinants of suicidal behavior in children.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1*, 178-186.
- Compas, B. E., Orosan, P. G., & Grant, K. E. (1993). Adolescent stress and coping: Implications for psychopathology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6*, 331-349.
- Compas, B., Davis, G. E., & Forsythe, C. J. (1985). Characteristic of life events during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3*, 677-691.
- de Anda, D. (1995). Adolescents.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edition. Silver Spring, MD: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de Anda, D., Baroni, S., Buchwald, L., Morgan, J., Ow, J., Gold, J. S., & Weiss, R. (2000). Stress, Stressors and Coping among High School Stude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2*(6), 441-463.
- Deroiser, M. E. & Koppersmidt, J. B. (1991). Costarican children's percepts of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656-

- 662.
- Dumont, M & Provost, M. A. (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3), 343-363.
- Eisenberg, N., Fabes, R. A., & Guthrie, I. K. (1997). Coping with stress: The roles of regulation and development. In S. A. Wolchik & I. N. Sandler(Eds.), *The handbook of children's coping*(pp.41-70). New York: Plenum.
- Fontana, A., & Dovidio, J. F. (1984).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school related performances of type A and type B adolescents. *Journal of Human Stress*, 10, 50-54.
- Friedrich, W., Reams, R., & Jacobs, J. (1992).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1, 403-407.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Gad, M. T., & Johnson, J. H. (1980). Correlates of adolescent life stress as related to race, SES, and level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iatry*, 9, 13-16.
-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 (1982).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5), 373-386.
- Hirsch, B. J. (1985). Adolescent coping and support across multiple social environm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3(4), 381-391.
- Johnson, J. H. (1986). *Life events as stresso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Labouvie, E. W. (1980). Alcohol and marijuana use in relation to adolescent st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21(3), 333-345.
- Lazarus, R., & Folkman, S. (1991).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empers, J. D., Clark-Lempers, D., & Simon, R. L. (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25-39.
- McCubbin, H., & Patterson, J. (1987). Adolescent coping style and behavior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olescence*, 10, 163-185.
- McGuire, D. P., & Mitic, W. (1987). Perceived stress in adolescents: What normal teenagers worry about. *Canada's Mental Health*, 35(2), 2-5.
- Omizo, M. M., Omizo, S. A., & Suzuki, L. A. (1988). Children and stress: An exploratory study of stressors and symptoms. *The School Counselor*, 3, 267-275.
- Plunkett, S. W., Henry, C. S., & Knaub, P. K. (1999). Family stressor events, family coping, and adolescent adaptation in farm and ranch families. *ADOLESCENCE*, 34(133), 147-168.
- Seiffge-Krenke, I. (1993). Introduction to special issue on stress and coping. *Journal of Adolescence*, 16, 227-233.
- Seiffge-Krenke, I. (1995). *Stress, Coping, and Relationship in Adolescenc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Sheridan, C. L., & Smith, L. K. (1987).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teenagers: Assessment and inter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somatics*, 34(2), 20-24.
- Stark, L. J., Spirito, A., Williams, C. A., & Guevremont, D. C. (1989). Common problems and coping strategies: Findings with normal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7(2), 203-212.

- Stern, M., & Zevrion, M. A. (1990). Stress, coping and family environment: The adolescent's response to acturally occurring stressor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5, 290-305.
- Tyszkowa, M. (1990). Coping with difficult school situations and stress resistance. In Bosma, H., & Jackson, S.(Eds.), *Coping and self concept in adolescence*. New York: Springer-Verlag.
- Williams, K & Lisi, A. M. (2000). Coping Strategies in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 Psychology*, 20(4), 537-549.